

전남 수해 최소 1100억원...정 총리 “섬진강 물난리 원인 규명”

구례 주민들 “섬진강댐 수위 조절 실패”...영산강홍수통제소 “200mm 예보대로 대처”

구례 등 섬진강 유역 홍수 피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확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중부권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비구름대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권에 물폭탄을 뿌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상황에서 섬진강댐 수위를 충분히 비워두지 않았다가 집중 호우시 수문을 개방해 피해를 키웠다는 구례 주민들 원성(광주일보 2020년 8월 10일자 1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대풍 상황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섬진강 수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섬진강 유역 침수 피해와 관련해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조치·대응 과정을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9일 정 총리가 초유의 물난리를 겪은 구례지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이 섬진강 상류에 자리 잡은 섬진강댐 수위 조절 실패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주민들은 정 총리에게 ‘폭우를 대비해 섬진강댐 수위를 낮춰 달라’고 집중호우시 댐에서 물을 가둬놓았어야 했는데, 반대로 콘베가 오기 전에 물을 가득 담았다가 집중 호우 때 수문을 대폭 열어 물난리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었다”며 “이와 관련한 댐관리 책임을 묻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구례군청 박병수 안전도시과장은 지난 9일 “집중호우와 함께 섬진강댐 수문 개방으로 섬진강 분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물이 구례읍을 감싸고 도는 서시천으로 역류, 물난리가 발생했다”며 “폭우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주민들은 섬진강댐 수위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산강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초당 50~600t의 소량방류해왔다. 폭우가 시작된 지난 7일 낮 12시에는 75%라는 비교적 높은 수위를 유지했다. 총저수량 4억6000만 t 가운데 3억5000만t의 저수량이 있었던 것이다. 폭우가 그치지 않자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초당 1000t으로 방류량을 늘리더니,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는 초당 1800t 이상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냈다. 구례읍 물난리 시기와 겹친다.

이에 대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측은 “최대 200mm라는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수위를 조절해왔으나 500년만에 있을까 말까 한 강물이 구례읍을 감싸고 도는 서시천으로 역류, 물난리가 발생했다”며 “또한 통제소 입장에서 홍수 예방과 함께 갑수기

유수 확보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4시 기준, 전남도가 피해를 잠정 조사한 결과 이번 폭우 피해 규모는 최소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방·도로 등 공공부분 피해 규모는 800억원, 민간 부분은 300억원으로 조사가 확대되면 피해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피해는 자고나면 불어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3시 기준 2774명이었던 이재민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3187명으로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1547명은 귀가했고 1640명은 대피 중이다.

주택 침수 피해도 1898동에서 2338동으로 늘었다. 전파 18동, 반파 17동, 침수 2303동이다.

침수·도복·낙과·유실 등 농경지 피해는 지난 9일 오후 3시 기준 6833ha였으나 이날 오후 5시에는 7260ha로 늘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담양 명옥헌원림·순천 선암사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사상 최악의 집중호우로 10일 현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무엇보다 피해는 지난 7일 0시부터 정오까지 비가 내린 담양과 영산강 인근 내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명옥헌원림(명승 제58호), 수남학구당(전남도 문화재자료 12호), 창평향교(전남도 유형문화재 104호), 죽림재(전남기념물 제99호), 창평면 삼지천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265호)가 피해를 입었다.

먼저 명옥헌 원림은 계곡의 범람으로 연못 뒷부분 입수구가 탈락 및 토사가 유입됐으며 아랫면못은 토축이 유실됐다. 수남학구당도 관리자 옆의 계곡이 범람해 진입로가 유실된 상태다. 창평향교 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조선시대 유교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던 유서깊은 공간이다.

역시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평향교 또한 대성전 및 전사정 뒤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죽림재 또한 토사가 붕괴되면서 담장이 파손됐으며 세월재 지붕과 기둥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슬로시티인 창평 삼지천 마을 옛담장 또한 모두 19개소가 붕괴돼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다.

국사사적 507호이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순천 선암사도 비 피해를 입었다. 종무소에 따르면 관음전 인근 매실나무와 이웃한 담장이 5m가량 붕괴됐다. 아울러 무주전 인근의 담장도 무너졌는데, 현재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비닐막을 설치한 상태다.



폭우로 붕괴된 선암사 무주전 담장.

전남도 기념물 237호인 화순 동북연둔리 마을송이이 주변 언덕도 일부 유실됐다. 추가 유실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흙을 붓도록해 상태다.

나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 지정 기념물 제29호인 미천서원의 담장과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도래마을 유남고택(흥기헌가옥)의 담장이 일부 유실됐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재를 엿볼 수 있는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이 한때 물에 잠겼던 긴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나주시 문화재 관계자는 “현재는 물이 모두 빠진 상태이지만 진입로는 아직도 물에 잠겨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제는 복구다...광주·전남 민·관 피해 현장서 구슬땀

전남도청 직원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곡성·담양지역 긴급복구에 발벗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구례 5일시장 상가 복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광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주민, 군 등도 비가 멈추자 피해 복구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속 공무원 600여명 규모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신속히 조직해 침수피해 현장에 본격 투입했다. 도청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자, 군인 등과 함께 매일 조를 편성해 수해 복구를 돕게 된다. 10일에는 곡성군에 감사관실 12명 등 315명, 구례군에 도민행복소통실 6명 등 1080명, 담양군에 자치행정국 53명 등 480명 등이 투입됐다.

휴가중인 직원들까지 즉각 복구에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직원이 복구작업에 투입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통합자원봉사센터를 즉시 가동해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270명의 봉사단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 구호물품전달·급식봉사·이재민 대피 등 긴급복구에 돌입했다. 향후 군부대·경찰·소방·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피해지역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내 의용소방대원 720여명이 매일 피해복구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해 남도사랑봉사단, 자율방범연합회 등 도내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도는 이어 도 전부서의 간부공무원을 22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구례읍 5일시장 주변에서 쓰레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개 시·군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지정했고 부서별 시·군 전담제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가 가장 심한 구례군에 대해 긴급방역에도 나섰다. 긴급방역은 여수와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6개 시·군 보건소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총 9개팀 18명의 방역 인력과 9대의 방역 차량이 투입됐다.

광주지역 주요 피해지역에는 광주시청 공무원 200여명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와

상수도 복구, 전기공급 재개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피해복구, 교통시설 복구 등의 작업을 시작했다. 광주 복구 공무원 546명을 포함해 주민과 자원봉사자, 군장병 등 1082명, 동구는 공무원 100여명, 남구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 완산구는 공무원 200여명 등이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됐다. 서구는 이번 호우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전담했다. 31사단장병 200여명 역시 5개 수해 지역에서 피

해 복구를 지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구호와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에서 10억원을 피해가 심한 시·군에 지급하고, 급수가 중단된 세대에게는 생수와 급수차를 긴급 지원했다”며 “앞으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침수 등 원인을 규명하고, 영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워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박진표 기자 lucky@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판사 ‘국보법 위반 1호’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관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관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대법관 최종 후보자 프로필

이흥구 (57)

- 연수원 22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지원장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위판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개별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함평군 공고 제2020-897호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49번지 일원의 함평 스포츠센터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의 기정화를 위해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시 계획적 발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개별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함 평 군 수

1. 제한지역
 - 위 치: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49번지 일원
 - 면 적: 155.513㎡ (59필지)
2. 제한기간: 고시일부러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계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3. 제한사유
 - 함평 스포츠센터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의 기정화를 위해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시 계획적 발전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개별행위허가 제한하고자 함
4.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별행위허가 대상 중 다음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 토지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용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별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개별행위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중인 개별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6. 관계서: ‘계제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기간: 2020. 8. 11 ~ 2020. 8. 24 (14일간)
8. 열람장소: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92)
9. 의견제출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임준근(610112-XXXXXX)
• 최후주소: 목포시 용영로 102-1, 2동 402호 (용당동, 유달1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236-1
피상속인 망 임준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단284호로 신청하여 2020년 7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11일

• 상속인: 임강민(871103-XXXXXX)
법택시 소사3로 22, 213동 203호 (소사동,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 2단지아파트)

• 신고기간: 2020. 8. 11. ~ 2020. 10. 20.
• 채권신고처: 상속인 임강민의 주소 (010-5816-0223)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동원합병(이하 '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배양전력(이하 '을'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송화전력(이하 '병'이라 한다)은 2020년 08월 10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해에 규정한 분할합병절차에 따라 '갑'과 '을'의 영의 일부인 영의 공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갑'과 '을'은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9 제3항의 절차를 밟아 출자사 이익의 배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이 분할합병에 이르게 된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회사의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20년 08월 11일

‘갑’-양도인(분할법인)
상 호: 주식회사 동원합병(합) 소 제 지: 광주광역시 서구 북진길 34(백전동) 대표이사: 손 비 선

‘을’-양도인(분할법인)
상 호: 주식회사 배양전력 소 제 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읍 용운길 35-55 대표이사: 나 승 주

‘병’-양수인(분할합병법인)
상 호: 주식회사 송화전력 소 제 지: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내촌길 15-8 대표이사: 이 화 서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나린솔루션(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남영(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0. 08. 10. 각 회사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분할합병 절차에 따라 '갑'은 전기공사사업 영 일부만을 분할하여 '을'에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을'이 포괄승계하기로 결의 하였기에 이에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회 회사에 이익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명 종류: 전기공사사업 (갑) 제 530-005호
2020. 08. 11.

‘갑’ 분할법인(양도인)
상 호: 주식회사 나린솔루션 소 제 지: 광주광역시 서구 백진길 34(백전동) 대표이사: 정 해 순

‘을’ 분할합병법인(양수인)
상 호: 주식회사 남영 소 제 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1-1 대표이사: 김 영 철

산행안내

8월1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8월15일(토) 덕유산 샷샷봉 원성계곡, 봉선동 롯데마트와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와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점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8월22일(토) ▲광주호산회 8월22일(토) 거제 대동령유양섬 저도 망봉산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창 원성계곡 사들동류 물길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